

Bell Home, Bell House

최 영 미
Choi, Young-Mi

1. 개요

2000년 2월에 개설되었으며, 5,003㎡(1,516평)의 지상 3층 규모이다. 벨 홈에는 50명, 단기 20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벨하우스는 30명이 정원이다.

병설시설로는 Home Helper Station, Day Service Center 및 재가개호지원센터가 있다.

2. 공간구성

구분	BELL HOME	BELL HOUSE
3층	1인거실(욕실), 식당, 담화실, DayRoom, 광정, 기능회복훈련실, 거실간 외부접근도	1인용 주거
2층	1인거실(욕실), 식당, 담화실, Day Room, 광정, 거실간 외부접근도, 기능회복훈련실, 의무간호, 정양, 테크(스틸)	1인용 주거
1층	지역개방공간, 사무, 상담, 주방, 식당, Day Room, 욕실 및 탈의실, 공용화장실, 기계	2인용 주거

3. 특징

계획지는 사이타마현(埼玉縣) 남동부의 하토가야시내의 주택지로, 약350m의 지하철 가장 가까운 역에서는 도심으로 약30분이다. 부지 남쪽에 케어하우스동을, 中庭(안뜰)을 끼고 북쪽에는 특별양호동을 나눠서 배치했다.

* 웰빙디자인 대표, 서해대학 겸임교수

건축은 생활거점·최후의 생활로서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게 하는 개인 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했다.

특양동에서는, 기능회복훈련실, 관리관계제설의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여, 가능한 한 거주 공간의 면적을 크게 했다. 식당·담화실에서 외부의 광정(光庭)을 끼고 들어오는 거실을 전70실 중 54실을 준비했고, 실내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실은 16실뿐이다.

거실면적은 17.25㎡가 확보되어,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넓이로 되어 있다. 각 거실에는 세면화장대와 휠체어 대응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움직이기 쉽게 되어, 입소자 및 케어 스태프 쌍방에 편리성이 높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 개호의 요구도가 높은 사람은, 2개의 플로어에 8실씩 총16실의 실내복도가 계속되는 거실에 입소하고 있다.

단기수용을 포함한 거실의 총수는, 2층에 34실, 3층에 36실 합계 70실이다.

거주 플로어의 생활단위의 인원수는 입소자 스스로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여 클러스터 등의 패턴화한 다이어그램(diagram)에 의한 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식당·담화실 등의 공유공간은, 각각 17~18인에 대응하는 넓이가 있지만, 통상은 8인 전후의 그룹으로 식사와 휴식 공간을 가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2·3층의 거주 플로어는, 테크(deck), 광정(光庭), 식재 등의 중간영역을 실내공간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보다 시각적으로 너비를 가진 지상감각의 공간으로 계획했다. 케어 스태프 등의 동작과 각 거실에서 받는 서비스가 한 눈에 보이므로 입소자에게 안심감을 줄 수 있다.

거실에서 광정(光庭)으로 나와 식당·담화실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겨울철의 추위를 문제로 느끼는 입소자는 극히 적다.

1층은 입소자, 통소자(通所者), 지역주민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교류의 거점으로, 앞으로 계속 개선하여야 할 개호보험제도와 복지 서비스를 시행·실천·검증 할 장이다.

케어하우스동은, 정원30인(1인용20호, 2인용5호)의 집합주택으로서 계획했다. 이들도 각 주호 전용부분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을 압축한 설계로 했다. 2·3

층의 1인용 주호(38.34㎡/호)에는 발코니를, 1층의 2인용 주호(76.68㎡/호)에는 약36㎡의 전용정원을 각각 만들어, 생활의 확대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또, 모든 주호에는 부엌, 세면소, 화장실과 욕실이 설치되어 있다. 식사는 특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조리과 배식에 의한 식사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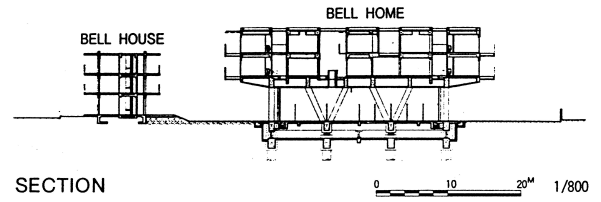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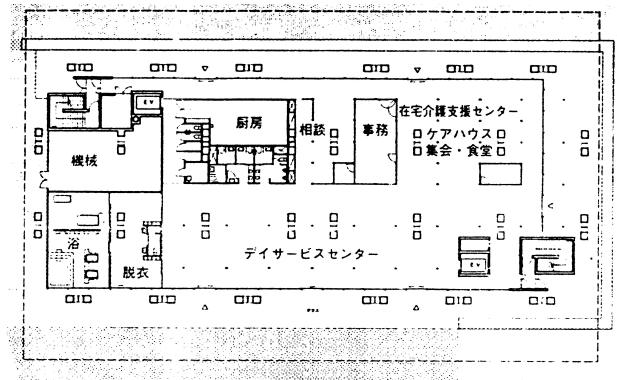


그림 3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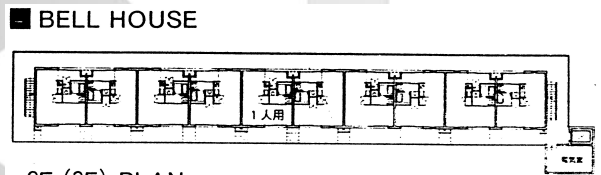
그림 1 식당 · 지역개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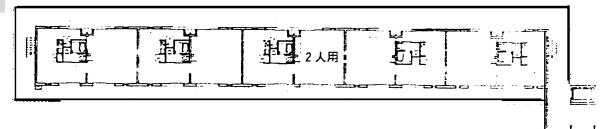
1F PLAN



그림 2 식당 · 담화공간



2F (3F) PLAN



1F PLAN

0 10 20m 1/800

그림 4 평면도